

## 「'Asian Consensus for Education' 기조연설」

2013년 12월 6일

안녕하십니까.

제 13 회 BESETOHA 총장포럼을 서울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Wang Enge 북경대 총장님, Hamada Junichi 동경대 총장님, Phung Xuan Nha 베트남 국립대 하노이 캠퍼스 총장님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아시아가 21세기 새로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동아시아가 세계무대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3년 전 BESETOHA의 창립을 통해 교육과 연구부분에서의 포괄적인 동아시아 협력관계를 형성한 것은 대단한 선견지명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BESETOHA를 통해 동아시아의 학술적·문화적·미래지향적 공통 이해를 추구하는 교육협력 노력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공통 가치를 형성하고 교육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동아시아 최고의 대학인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번 BESETOHA에서는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베트남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 먼저 Asian Consensus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BESETOHA 4개 회원대학은 해당 국가의 최고대학으로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BESETOHA 4개 대학은 파트너 대학이자 각국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 대학으로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동아시아 발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 BESETOHA의 역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BESETOHA 연구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오늘날 세계화의 전개, 지식기반사회의 심화 등 국가사회의 환경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형식과 틀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개발을 통한 산업과 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연구 부문의 국가 간 상호 교류와 협력 및 상호 의존관계의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BESETOHA의 공동연구를 위한 공통관심분야를 개발하고, 대표 연구자 교수를 지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번 BESETOHA에서 이미 지역학 분야의 대표 연구자 교수가 지정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대표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서 대학은 자유롭고 안정적인 연구기회와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가 전개됨으로써 Asian Consensus에 점차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BESETOHA 교육협력 강화입니다.

한·중·일 3국은 이미 아시아판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서울대는 4개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다자간 대학생 교류 사업으로 다자간 복수·공동학위 취득을 최종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 학생교류사업은 전문적 영역에서의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 서로 다른 문화 간에서 생활하는 능력, 자립심 등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BESETOHA 회원 대학 간 다자간 대학생 교류사업 추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건전한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 공동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BESETOHA 4개 회원대학 학생들 모두 머리 좋고,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입신양명에 집착하지 않고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애환의 본질과 시대적 소명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BESETOHA 학생들이 인본주의적 기초를 다지면서 나의 발전, 우리의 발전, 사회의 발전, 인류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사회봉사와 책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BESETOHA

학생캠프 개최를 제안 드립니다.

아시아 주요 4국간의 공동번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덕의 가치, 나눔의 가치, 공존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가져야 하는 전통적이며 동양적인 가치인 '협력적 대응과 나눔'이 세계적인 가치로 승화될 수 있고 이러한 가치가 인류의 번영과 미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4개 대학들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각자가 가진 미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미래 아시아 국가 발전을 이끄는 데 있어서 모범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